

제2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세미나 추진을 위한 경사연-요녕사회과학원 협의 결과

2015년 4월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협의회 개요

- 일 시
 - 2015년 4월 1일 오후 3시~6시
- 장 소 :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소회의실
- 참석자

구 분	참 석 자
한 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고일동 소장, 정호근 팀장), 산업연구원(조철 실장)
중 국	요녕사회과학원(모우 다이 부원장, 우영자 주임, 장 총 조리)

2. 주요 협의내용

□ 7월 선양세미나

- 세미나 제목
 - 동북아 공동번영, 동북아 경제협력 등의 주제로 많은 세미나가 열렸거나 현재 추진 계획인 만큼 이들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데 서로 동의함
 - 제목은 “한중FTA 시대의 동북아지역 공동발전 방안”으로 하고 부제목으로 “물류, 에너지, 금융협력 방안”을 사용하기로 함
- 세션 내용
 - 중국 측은 여러 소주제를 폭넓게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함. 한국 측은 분야별 소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계획을

경사연-요녕사회과학원의 학술협력 협의서에 담고, 7월 세미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이에 중국 측이 동의함

- 7월 세미나에서는 물류, 에너지 그리고 산업세션에 금융협력 내용을 포함하기로 함

- 비용 분담

- 중국 측이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 인력에 관한 부분은 경사연(산업연구원)에서 지원하기로 함

- 행사장 임대, 식대(9일 저녁 만찬, 10일 오찬, 그리고 10일 저녁 만찬 여부는 추후 논의), 자료 번역, 세미나 동시통역(최대 3개국 언어) 비용과 관련함

- 세미나 형식(공개/비공개)

- 한국 측은 비공개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사연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중국 측의 양해를 구함

- 발표 및 토론 문건에 대한 양쪽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한 공개행사로 추진하기로 함

- 필요한 경우 양측이 동의한 발표, 토론 요약문을 언론에 사전 전달하도록 함

- 참석 대상

- 한국, 중국 외 제3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형태에 상관없이 다자간 세미나로 취급되어 행사승인까지 많은 기간(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양측 모두 인지함. 그럼에도 동북아 공동발전 세미나인 만큼 한국, 중국 외에도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하는 필요성에 서로 동의하고 다자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세미나에 참석하는 제3국의 전문가는 요녕사회과학원과 협의 하에 한국 측이 결정하기로 함

○ 세미나 장소

- 요녕사회과학원 소회의실(협소), 대회의장(강당 형태)보다는 외부의 적절한 행사장을 정해 추진하도록 함
- 우의 국민관, 로얄 크라운 호텔, 샹그리라 호텔, 하얏트 호텔이 세미나 후보지로 제안됨

□ 기타

○ 경사연- 요녕사회과학원 지속적 연구협력

-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담고 있는 협약서를 7월 9일 교환하기로 함
- 7월 세미나 이후 하반기(10월말 이후)에 한국에서 양측이 동의하는 소주제에 대해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함. 이와 관련 한국 측(경사연)이 요녕사회과학원 요인 10여명을 초청하기로 함

○ 세부 연구협력 주제

-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과 에너지 비축 방안(태양, 풍력 등), 화석연료 자동차와 관련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쓰레기와 관련한 토양, 수질 오염문제 해결방안, 서민 주거문제 해결 방안 등